노동자와 함께 도약하는 인천공항

노동자 건강 뒷받침하는 보건관리자

인천국제공항공사 | 김윤경 보건관리자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사진** 강권신

**인천공항이 글로벌 'Top5' 반열에 오른 지 이미 오래다.
물론 이 도약과 성장은 1만여 명의 노동자의 구슬땀을 동력으로 한다.
김윤경 보건관리자는 인천공항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인천공항이 '글로벌 No.1' 공항으로
더 크게 도약하기를 바라며 하루를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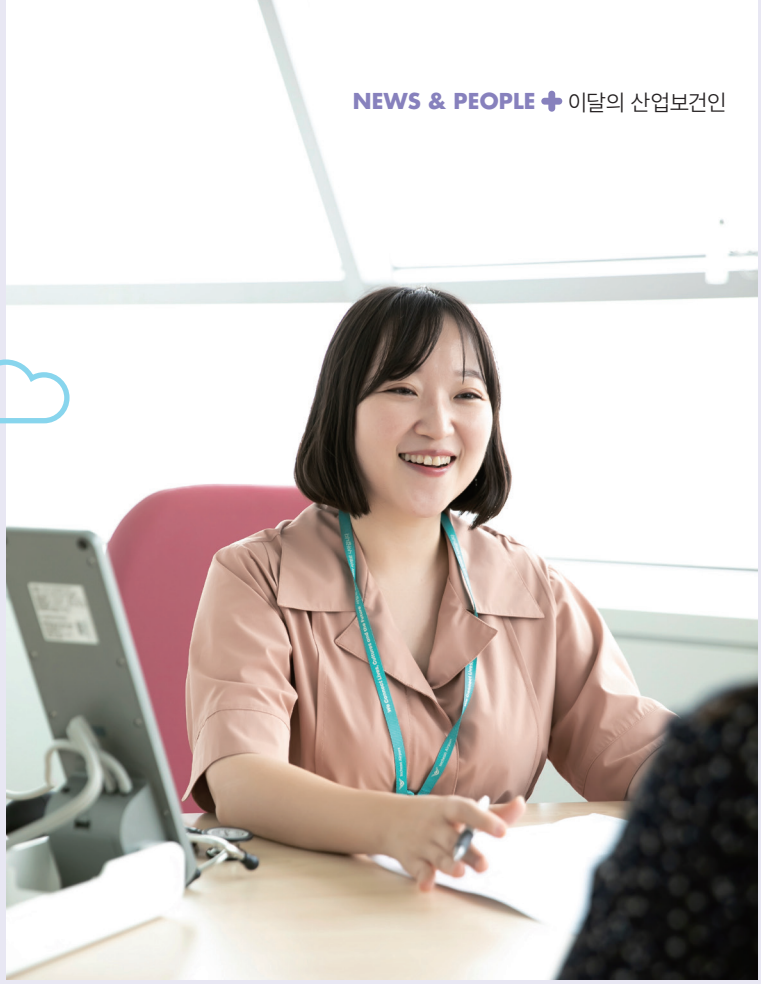
'보건관리자' 김윤경이 되기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8년 공개채용을 통해서다. 2003~2009년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2009~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 소재 의원에서의 가정의학과·소화기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성형외과 근무 등 10여 년간 임상간호사로서 쌓은 이력을 뒤로하고 산업현장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아산병원 입사 5년 차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 아동간호학을 전공하였으나, 학업과 일 모두를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하였죠. 더욱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 미국 간호사 면허인 'NCLEX-RN(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에 응시했습니다. 이후 미국행을 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죠."

귀국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보팀에서 보낸 시간은 그를 산업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했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아닌,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때 국내외 개발자들과 협업 경험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빛을 발하는 중이다.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이라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건강을, 인천공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건관리자로 남고 싶습니다.



"환자를 직접적으로 돌보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건강한 사람이 환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가 샘솟았죠."
그가 보건관리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곳은 한국쓰리엠 제조본부 화성공장. 미국 본사 주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와 산업간호사의 개별적 트레이닝은 '보건관리자'로서의 김윤경을 완성시켰다.

협업으로 강화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은 공사 노동자 1,800여 명, 3개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노동자 8,600여 명의 일터다. 김윤경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팀 소속으로, 산업안전팀에는 법적 선임된 안전관리자 3명, 김윤경 관리자 외에 1명의 보건관리자가 더 선임돼 있다.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인천공항 직영·도급·발주 사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 수준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보건관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보건관리자의 기본 업무다. 그 밖에 법적 충족사항 이행 여부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인 까닭에, '글로벌 허브 공항' 보건관리자로서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보건관리자로 함께 근무 중인 이수란 계장님과 의견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3개 자회사에 소속된 보건관리자와도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고충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 속에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업무 중압감도 다소 해소되는 편이죠."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관건은 노동자의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이다. '인천공항 집콕 운동왕 선발대회', '인천공항 체력왕 선발대회'는 노동자 호평 일색인 프로그램으로, 참여방식 및 결과에 다양한 시상 기준을 마련해 노동자의 흥미를 돋웠다. 또 주목할 점은 유관기관과의 연계다. '인천공항 체력왕 선발대회'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조 하에 진행됐는데, 전문가집단과의 연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또한 인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한 프로그램이다.

인천공항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건관리자

올해 인천공항은 '글로벌 Top 4'* 영예에 올랐다. 그 명성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해외여객 수요 확대·협력사 매출증대 등 인천공항의 국내생산유발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ESG경영 실현을 위한 행보도 거침이 없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지역생태공원 조성, 공항 내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게 인천공항 ESG의 특징이다. 산업안전팀을 통한 ESG 실천도 눈에 띈다.

"산업안전팀 자체적으로 '인천공항 안전·위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노동자뿐 아니라 그 누구나 전화·카카오톡·이메일·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전 관련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바로 확인 후 이용자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범국민 차원으로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하는 셈이다. 2개월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진행하는 헌혈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ESG 활동 중 하나다.

"저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이라는 데 자부심이 높습니다.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요.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이라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건강을, 인천공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건관리자로 남고 싶습니다."

* 영국의 '스카이트랙스(Skytrax)'는 매년 전 세계 공항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